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 Compet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Formation Education: Focusing on Field Practicum Experience

Taeun Shim¹, Cheolhae Ye^{2*}

¹Hankyong National University, ²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of career competencies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completed field practicum,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formation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co-curricular programs.

[Cont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5 university students who completed a designated period of field practicum. Based on their evaluations of 30 career competencies and 22 co-curricular programs, a paired-sample t-test and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PA) were conducted.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or most competencies, the perceived import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erformance ($p < .001$). In particular, substantial gaps were identified in practice-oriented competencies such as field practicum competency, job understanding competency, major-related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e IPA results showed that practical competencies were classified into the "Concentrate Here" quadrant, whereas human formation - based competencies such as responsibility, since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belonged to the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 In the analysis of co-curricular programs, corporate-linked programs, field practicum,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although their performance levels remained relatively low.

[Keywords] Human formation education, Field practicum, Career competency,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Co-curricular programs

* Corresponding author Cheolhae Ye (Professor,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E-mail : chye1103@kh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인간형성 교육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취업역량 인식 연구: 현장실습 경험을 중심으로

심태은¹, 예철해²

¹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교수, ²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형성 교육 관점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연구 대상은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 205명으로, 이들이 평가한 30개의 취업역량과 22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표본 t-검정과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결론] 대부분의 취업역량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 .001$), 특히 현장실습능력, 직무이해능력, 전공분야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등 실무 중심 역량에서 큰 격차가 확인되었다. IPA 분석에서는 실무역량이 집중개선 영역으로 분류된 반면, 책임감·성실성·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기반 역량은 지속유지 영역에 해당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나 수행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에서 실무 중심 역량 강화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인간형성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생의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인간형성 교육, 현장실습, 취업역량, 중요도-수행도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요구 역량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Kwon, 2025. 11. 23.). 특히 AI 기반 환경에서 직무는 고도화되고 업무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단순 지식 습득보다 문제 해결력, 데이터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등 고차적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World Economic Forum, 2020. 10. 20.). 이러한 변화는 대학 교육이 학점이나 스펙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 실제 직무에서 요구되는 실무기반 역량과 전인적 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요구한다.

최근 기업 채용 경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신규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직무 관련 일 경험’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35.6%), 그 뒤를 ‘일반 직무 역량’(27.3%)과 ‘전공 지식’(22.5%)이 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숭실대학교의 졸업생 자료에서도 현장실습 이수자의 취업률(81.3%)이 미이수자의 취업률(69.7%)보다 높게 나타나, 현장 경험이 취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된다(Lim, 2024. 11. 19.).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Kuh(2008)의 ‘High-Impact Practice’ 연구는 현장실습, 인턴십과 같은 경험기반 학습이 학생의 직무 이해도와 취업역량을 유의하게 강화한다고 제시하며, Yorke & Knight(2006)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모델 역시 실천적 경험과 대인·조직적 역량의 결합이 취업 성공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다. 또한, Bridgstock(2009)은 미래 사회의 인재상으로 기술적 역량과 함께 인간적 역량(human capacities), 즉 성실성·책임감·조직 적응력·소통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갖춘 인재를 제시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의 필수 요소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형성 교육(Human Formation Education)은 현대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간형성 교육은 지식·기술 중심의 기능적 교육을 넘어,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인성, 태도, 사회성, 관계성)을 강조하며, 이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직적응능력, 성실성, 책임감,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인성 기반 역량은 다양한 연구에서 직무성과 및 조직 사회화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Arbar, & Mandurah, 2014).

현장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보는 대표적인 경험기반 학습으로, 실무능력과 직무 이해도를 높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평가된다(Jung, 2019: 269).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인턴을 했지만 이력서에 쓸 만한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 참여 중심의 실습이 경력의 서사(narrative)로 전환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즉, 역할·맥락·해석을 중심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현장실습의 효과를 주로 직무능력 향상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술적 역량에 편중된 접근으로 인해 취업역량을 구성하는 인간형성 기반 역량과 실무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특히 취업역량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층적인 구조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두 역량군의 결합적 의미와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형성 교육의 관점을 도입하여 실무역량과 인성역량이 현장실습 경험 맥락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영역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지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을 적용하여 현장실습 경험 대학생이 인식한 취업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무역량 영역과 이미 강점으로 확인된 인성역량 영역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기업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인식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역량 기반 비교과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형성 교육의 관점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30개 취업역량은 국내외 주요 취업역량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통합하여 구성하였으며, 실무역량과 인간형성 기반 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Kuh, 2008; Yorke, & Knight, 2006; Won, & Joo, 2023). 이러한 구성은 취업역량을 전인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30개 취업역량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다.

둘째, 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실무역량과 인성역량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대학 교육의 개선 영역을 도출한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을 분석하여 학생 중심의 비교과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재학생 중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N = 205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응답자는 성별로는 남(107명), 여(98명), 단과대학별로는 경영대(21), 경찰사범대(1), 공과대(91), 문과대(16), 미래융합대학(2), 법대(4), 사범대(4), 사회과학대(42), 예술대(12), 이과대(12)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205명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참여한 직무군으로는 제조업·기술직군(66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정보통신·IT직군(59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금융·회계·보험직군(26명)으로 나타났다. 마케팅·광고·홍보 및 문화콘텐츠 분야(18명), 물류·유통·무역 분야(16명)가 그 뒤를 이었으며, 공공·행정·법조·교육직군(8명), 연구·전문직군(7명), 서비스업(5명)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이 이공계 기반 제조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진로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대학의 전공 구조 및 지역 산업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역량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취업준비도, 직업기초능력,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성 관련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단순한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책임감, 적응력 등 인성적 역량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Bridgstock, 2009). 또한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IPA(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접근은 고등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에서 타당한 분석 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Abdullah, 2006).

취업역량은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생 핵심역량(Kuh, 2008; Yorke, & Knight, 2006), 취업역량(Won, & Joo, 2023; Park, Seo, & Ahn, 2020) 등 국내외 주요 취업역량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구성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30개 항목의 실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인사담당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통해 검토되었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인성역량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인식 측정 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

(CBE)과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Baek, 2020; Chung, Yun, & Kong, 2019). 문항에는 기업 연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현장실습, 취업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외국어·글로벌 프로그램뿐 아니라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취업역량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판단은 유의수준 $\alpha=.05$ 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계산하였다.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일 경우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에 필요한 취업역량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항목, 즉 교육적·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대적 위치와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IPA(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IPA 분석에서는 수행도(만족도)를 X축, 중요도를 Y축에 배치하여 네 개의 사분면(집중 개선, 유지 강화, 낮은 우선순위, 과잉 노력이 우려되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사분면의 분할 기준선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전체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역량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영역을 도출하였다. IPA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역량 개발 및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현장실습 시 필요한 취업역량 중요도 및 수행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분석 결과

본 연구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와 수행도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지하는 역량 격차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역량에서 중요도 평균이 수행도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p<.001$),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의 역량 수준은 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역량의 필요성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으나, 실제 실천 수준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선, 기업 요구 직무능력 영역에서는 전공분야 전문지식,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기획력, 문제해결능력, 외국어능력 등 기초적인 직무수행 역량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수행도는 중요도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기본적인 실무역량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특히 전공분야 전문지식($t=14.13$, $p<.001$), 문제해결능력($t=13.78$, $p<.001$), 컴퓨터활용능력($t=10.88$, $p<.001$)과 같은 핵심 실무역량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직무환경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역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즉 학생들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학습경험과 현장경험이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음으로, 조직적응 및 직무수행 능력 영역에서는 책임감, 적극성, 성실성 등 인성 기반 역량에서 중요한 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나,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책임감이나 성실성 등 기본적인 직업윤리적 태도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직문화 수용 및 적응력, 기본 매너 등 조직적응성 관련 역량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은, 실제 직무환경에서 요구되는 협업능력이나 조직적응능력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특히 협업과 조직문화 적응은 현장실습 경험만으로는 충분히 강화되기 어려워 교육과정 내에서 추가적인 체험 훈련이 요구됨을 인식하였다.

또한 미래성장과 현장실무 역량에서는 향후 발전가능성, 글로벌마인드, 창의성 등 미래대응 역량뿐 아니라, 융복합사고능력, 시장경제 이해도, 시사능력 등 다양한 역량에서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미래성장가능성 및 변화대응 능력군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해당 역량의 현재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장기적 역량 개발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특히 직무이해능력(평균차 3.10, $t=20.36$, $p<.001$)과 현장실습능력(평균차 3.74, $t=19.27$, $p<.001$)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으로, 이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제 업무수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과 사전교육의 체계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즉 단기적 현장 배치 경험만으로는 산업 구조의 이해나 직무전문성이 온전히 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조화된 사전 준비와 실습 이후의 후속 학습이

<표 1> 취업역량 중요도 및 수행도 차이분석

<Table 1>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mployment Competency

NO	구분	필요역량	중요도 평균	수행도 평균	평균차이	t값	p값
1	기업 요구 직무능력	전공분야 전문지식	8.52	6.39	2.13	14.13	.000***
2		컴퓨터활용능력	8.05	6.33	1.72	10.88	.000***
3		문서작성능력	7.66	6.47	1.19	7.53	.000***
4		프레젠테이션 능력	7.78	6.11	1.67	10.23	.000***
5		기획력	7.47	5.89	1.58	9.81	.000***
6		수리능력	7.15	6.34	0.81	5.63	.000***
7		문제해결능력	8.68	7.20	1.49	12.73	.000***
8		외국어능력	7.72	5.75	1.97	10.70	.000***
9		정보능력	8.34	6.69	1.65	12.63	.000***
10		글로벌트렌드 능력	7.81	6.28	1.53	10.21	.000***
11	조직적응 및 직무수행 능력	책임감	9.01	8.33	0.69	5.61	.000***
12		적극성	8.77	7.89	0.88	7.39	.000***
13		성실성	9.15	8.49	0.66	6.13	.000***
14		조직문화 수용 및 적응력	8.85	8.43	0.42	1.09	.001**
15		기본매너	8.96	8.62	0.34	3.43	.001**
16		자원관리능력	7.58	6.16	1.42	10.96	.000***
17		대인관계능력	8.57	7.68	0.89	7.87	.000***
18		리더십	7.50	6.90	0.60	4.40	.000***
19		의사소통능력	9.08	8.08	1.00	1.012	.000***
20	미래성장가능성 및 변화대응 능력	글로벌마인드	7.59	6.07	1.52	9.70	.000***
21		창의성	7.51	6.43	1.08	8.71	.000***
22		향후 발전가능성	8.65	7.89	0.76	6.06	.000***
23		공감과 배려능력	8.00	8.16	-0.17	-1.24	.215
24		융복합사고능력	7.81	6.08	1.73	13.68	.000***
25	현장실무 능력	현장실습능력	8.44	4.70	3.74	19.27	.000***
26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7.80	5.41	2.39	12.92	.000***
27		시사능력	7.15	5.31	1.84	10.60	.000***
28		갈등관리능력	8.38	7.81	0.57	4.14	.000***
29		자기개발능력	8.01	7.05	0.96	7.86	.000***
30		직무이해능력	9.17	6.07	3.10	20.36	.000***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장실습을 수행한 대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의 실제 역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실무와 직결되는 직무이해능력, 현장실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 대학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역량이 단순히 전공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형성 교육의 핵심 요소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실무 중심 역량개발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교육적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현장실습 시 필요한 취업역량 IPA 매트릭스 분석

본 연구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30개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IPA(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단순한 평균 비교를 넘어, 대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역량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역량 개발 교육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 IPA 매트릭스의 축 기준선은 전체 항목의 중요도 평균(8.264점)과 수행도 평균(6.838점)으로 설정되었다.

I 영역에 위치한 역량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학생들의 실제 수행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교육적 개입이 요구되는 핵심 개선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총 3개의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현장실습능력(8.44/4.70)은 30개 항목 중 수행도가 가장 낮아 평균 차이가 무려 3.74점에 달한다. 이는 응답자가 현장실습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이해도·직무 적응도·현장 문제해결 등의 실제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대학의 현장실습이 형식적 운영, 사전 준비교육 부족, 실습 기관의 교육역량 차이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분야 전문지식(8.52/6.39)과 정보능력(8.34/6.69) 역시 수행도가 기준선 미만으로 나타나, 이론 학습과 실무 적용 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반 역량이 여전히 대학 교육과 충분히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I 사분면을 실무기관 역량강화, 교과-비교과 연계강화, 현장실습 품질 제고, PBL 및 캡스톤 등 실무문제 기반 학습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II 영역은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수행도 수준도 높아, 현재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잘 유지되고 있는 역량군이다. 총 11개의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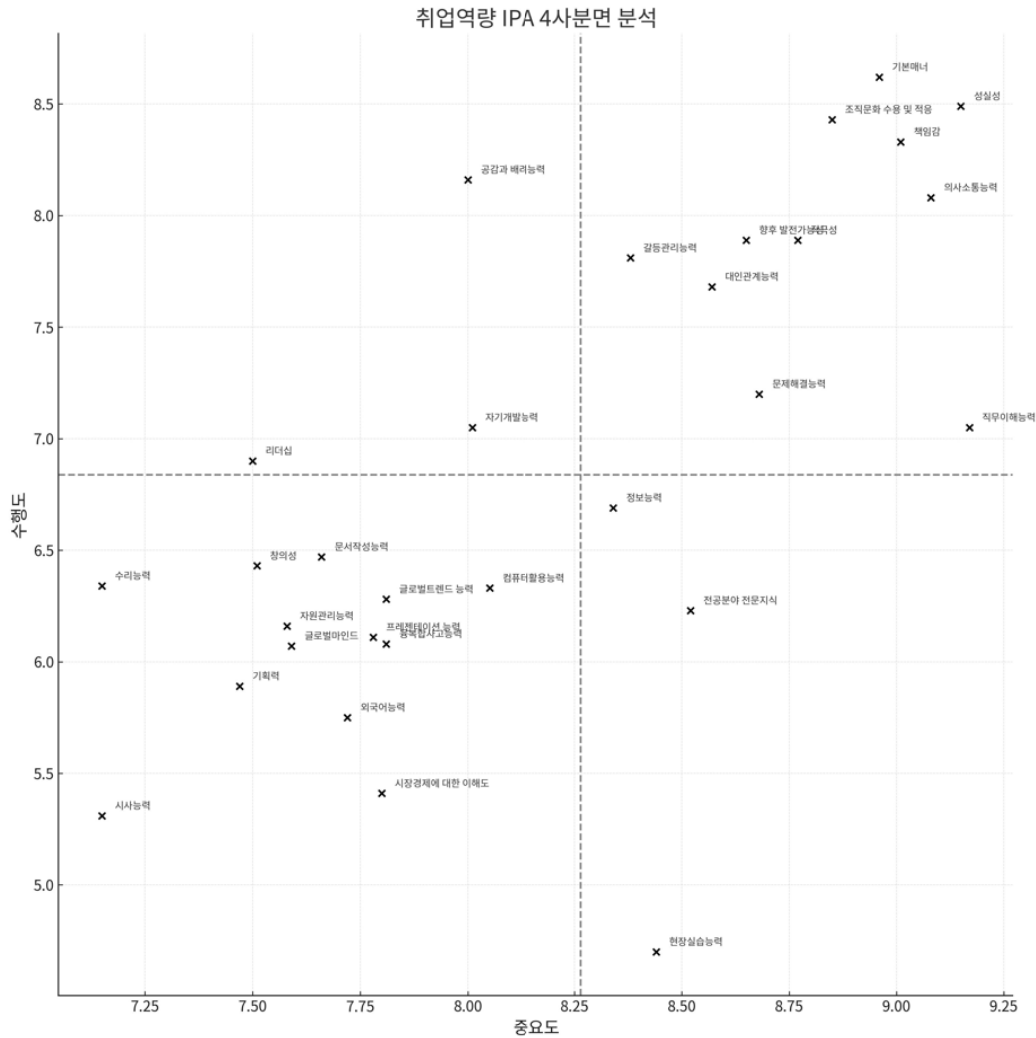
성(9.15/8.49), 기본 매너(8.96/8.62), 책임감(9.01/8.33) 등 높은 수행도를 보이며, 이는 대학생들이 인성 기반의 직업 태도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해결능력(8.68/7.20), 의사소통능력(9.08/8.08), 직무이해능력(9.17/6.07)은 실제 직무 현장에서 필수적 역량으로 분류되며, 대학에서의 기초 소양 교육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영역은 현재 유지해야 할 강점이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코칭·문제해결·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영역은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아, 즉각적 투자 필요성이 낮은 역량들로 구성된다. 총 13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시사능력(7.15/5.31), 수리능력(7.15/6.34), 외국어능력(7.72/5.75), 기획력(7.47/5.89) 등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역량을 취업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취업 과정에서 해당 역량이 차별화 요소로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역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취업 시장 신호(job market signals)가 역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영역은 단기 집중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적절하며, 교육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Ⅳ 영역은 수행도는 높으나 중요도는 낮아, 과도한 교육 자원 투입이 의심되는 역량들이다. 공감과 배려능력(8.00/8.16), 자기개발능력(8.01/7.05), 리더십(7.50/6.90)이 포함되었다. 교육현장에서 인성역량을 강조해온 결과,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수행도를 보고하고 있으나, 취업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감·배려능력”은 수행도가 높은 반면 중요도는 기준선 미만이었는데, 이는 최근 기업에서 인성보다는 직무 역량 중심 채용(Competency-based Hiring)을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I 사분면의 실무기반 역량에 비해, 이 영역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너무 집중 투입된 자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표 2> IPA 매트릭스에 따른 요인 분배
<Table 2> Factor distribution according to IPA matrix

↑ 수행도 ↓	Ⅳ. 과잉 노력(Possible overkill) 중요도(< 8.264) & 수행도(≥ 6.838) 투자 자원이 과도하게 들어간 영역	Ⅱ. 유지 강화(Keep up the good work) 중요도(≥ 8.264) & 수행도(≥ 6.838)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영역
	Ⅲ. 낮은 우선순위(Low priority) 중요도(< 8.264) & 수행도(< 6.838)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	Ⅰ. 집중 개선(Concentrate here) 중요도(≥ 8.264) & 수행도(< 6.838)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영역
	← 중요도 →	



[그림 1] IPA 매트릭스 분석결과
[Figure 1] IPA Matrix Analysis Results

3. 현장실습 경험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요도 및 수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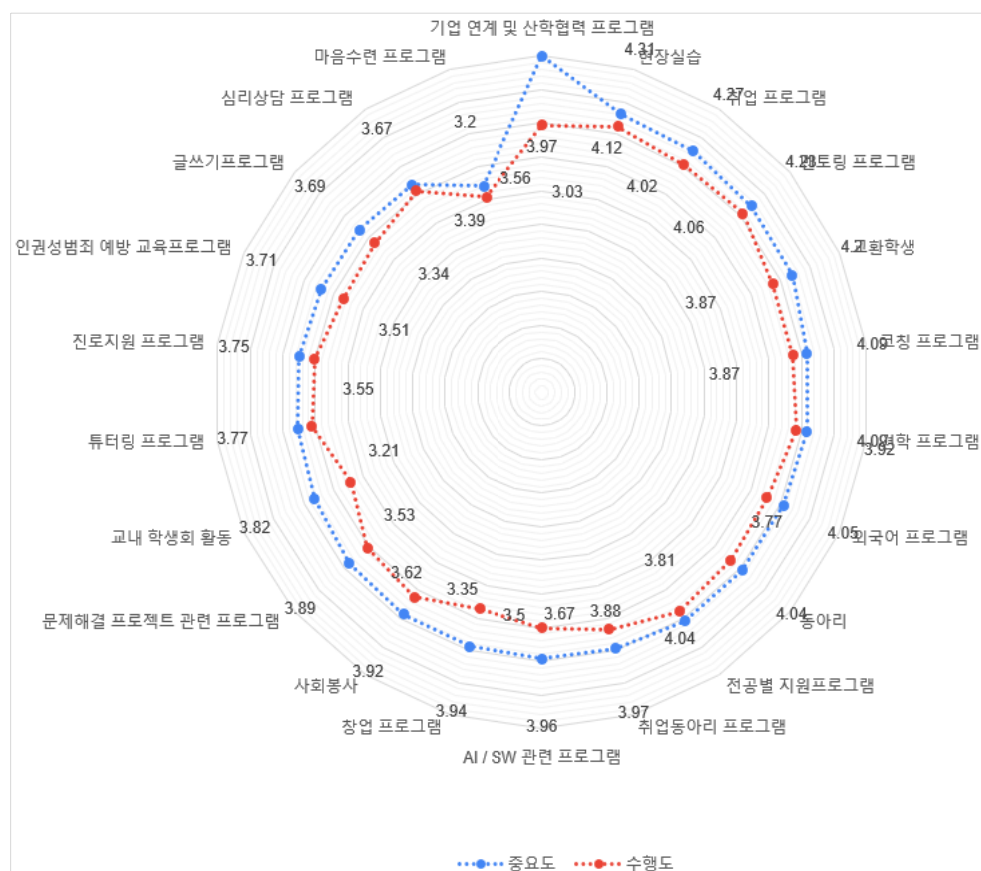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수행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기업 연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산업체와의 직접적 접촉을 제공하는 활동이 취업역량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

여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교과 활동 역시 중요도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단순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보다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행도 측면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요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회 제공이나 프로그램 품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현장실습과 취업 프로그램은 비교과 활동 중 수행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도 대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족, 운영 방식의 한계, 또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깊이와 실효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 국제 역량과 관련된 활동들은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에도 수행도는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접근성, 비용, 정보 부족 등이 참여 경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문제해결 프로젝트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보였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취업 준비의 핵심 요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학생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인권·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수련 프로그램과 같은 정서·안전 관련 비교과 활동은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취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자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장기적 대학 생활 및 취업 준비 전 과정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홍보 방식이나 인식 제고 전략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비교과 프로그램 중요도-수행도 간의 불일치 현상은 대학의 비교과 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실무 기반 취업 준비 프로그램은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와 산업체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된다. 반면,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 관점에서 자원 재배치나 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학이 앞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 학생 수요 기반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실질적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2] 현장실습 경험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요도 및 수행도

[Figure 2]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omparative program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with field training experience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형성 교육 관점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취업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역량에서 중요도가 수행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특히 현장실습능력·직무이해능력·전공 관련 전문지식·정보능력과 같은 실무 중심 역량에서 가장 큰 격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고용 환경이 요구하는 ‘즉시 업무 투입 가능성’과 ‘직무기반 실무역량’ 중심의 채

용 흐름(World Economic Forum, 2020. 10. 20.; Won, & Joo, 2023)에 대학 교육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책임감·성실성·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기반의 인간형성 교육 요소는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직업윤리·성실성·기본 매너 등 전인적 역량에서는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형성 역량이 실제 직무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직무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현장 실무능력과의 통합적 발달이 필수적이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Bridgstock, 2009; Kuh, 2008).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기업 연계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수행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학생들이 경험하는 프로그램의 질·기회·접근성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참여기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결과에서 실무 기반 역량이 ‘집중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단순히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교육 - 현장경험 - 성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습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실습 능력은 실습 직전의 직무분석 기반 오리엔테이션, 실습 중 과제 수행, 실습 후 포트폴리오 작성 연계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직무 이해능력은 산업체 전문가 강의, 직무기반 프로젝트 활동, 실무자 멘토링 등 실제 업무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능력과 전공 관련 전문지식의 경우 실습기관과 연계한 캡스톤 디자인,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실무형 과제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수행 경험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역량, 융복합 사고력, 창의성 등이 중요도 기반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공 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역량개발 도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형성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역량과 실무역량이 균형 있게 통합될 때 실제 취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실무 중심 교과 비교과의 연계 강화, 현장실습의 질적 고도화 및 산업체 협력 모델 확장,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결과를 반영한 역량군별 맞춤형 교육 설계,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혁신 전략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대학 교육의 역량을 재정립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References

- Abdullah, F. (2006). Measuring Service Quality in Higher Education: HEdPERF versus SERVPERF.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24(1), 31-47.
- Akbar, H., & Mandurah, S. (2014). Project-conceptualisation in Technological Innovations: A Knowledge-based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2(5), 759-772.
- Baek, S. H. (2020).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259-282.
- Bridgstock, R. (2009). The Graduate Attributes We've Overlooked: Enhancing Graduate Employability Through Career Management Skill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28(1), 31-44.
- Chung, Y. S., Yun, H. J., & Kong, S. S. (2019). Developing Customized Extra-curriculum to Cultivate Key Competenc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5), 293-321.
- Jung, J. Y. (2019). An Analytical Study on Subjective Perceptions and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Employment Possibilities.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38(4), 269-294.
- Kuh, G. D. (2008).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Peer Review*, 10(4), 30-31.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Education for Life and Work: Developing Transferable Knowledge and Skill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Park, K. S., Seo, H. J., & Ahn, Y. S. (2020). Analysis on the Educational Needs of Employment Competencies of New Middle-aged Job Seeke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6), 19-37.
- Won, J. B., & Joo, Y. K. (2023).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Life-long Employability Competency of Young Peopl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3(3), 41-78.
- World Economic Forum (2020. 10. 2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Retrieved 2025. 11. 3., from <https://www.weforum.org/reports/the-future-of-jobs-report-2020/>
- Yorke, M. (2006). *Embedding Employability into the Curriculum*. Higher Education Academy.
- 권진한 (2025. 11. 23.). 영주시, AI 시대 생존 전략 특강...KAIST 이경상 교수 'AI가 바꾸는 미래' 진단. 경북일보. (Translated in English) Kwon, J. H. (2025. 11. 23.). *Yeongju*

City, Special Lecture on Survival Strategies in the AI Era: KAIST Professor Lee Gyeongsang Analyzes 'The Future Changed by AI'. Kyongbuk Ilbo. Retrieved 2025. 11. 3., from <https://v.daum.net/v/20251123160943621>

에듀브랜더 제니쌤 (2025. 6. 26.). 취업 준비생이 꼭 챙겨야 할 역량 5가지: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듀메이킹컴퍼니 - 나답게, 더 나답게. (Translated in English) Edu-Brander Teacher Jenny (2025. 6. 26.). *5 Essential Competencies for Job Seekers: What Matters More Than Credentials Is 'Practical Working Ability'.* Edu Making Company - Be Yourself, Be More Yourself. Retrieved 2025. 11. 3., from <https://emc4617.tistory.com/15>

임성일 (2024. 11. 19.). 현장실습 · 인턴으로 취업문을 활짝 열자. 승대시보. (Translated in English) Lim, S. I. (2024. 11. 19). *Let's Open the Door to Employment Wide with Field Training and Internships.* Soongdae Sibbo. Retrieved 2025. 11. 3., from <https://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4>